



제281회 임시회  
**시정질문 · 답변**

시정질문과 답변 내용  
(일문일답)입니다.



## 김민숙 의원

“0시축제의 성과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질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김민숙 의원

### ◎ 김민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숙 의원입니다.

조원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교육관계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0시 축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대전광역시의 발전적인 지역축제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이장우 시장님, 답변을 위해서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번에 축제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지요?

###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예, 많이 했습니다.

### ◎ 김민숙 의원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함께하신 많은 시민들 또 행사를 위해서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번 축제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지난번 0시 축제 기자 브리핑을 통해서 참여 인원을 200만 명으로 발표하셨지요?

어떻게 추정해서 나온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추정치고요, 최종발표는 축제 평가 및 컨설팅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10월 초에 객관적인 통계가 나오리라 보고 현재 200만 명 이상, 이번 0시 축제는 9일간 했고요. 그런데 의원님은 거의 볼 수가 없었는데.

### ◎ 김민숙 의원

저 네 번 갔습니다.

###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네 번 오셨어요?

국내 축제 중 단일기간에 한 200만 명 이상이 왔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축제에서 2년 연속 안전사고나 쓰레기, 바가지요금 없는 3무 축제 달성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 통계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방문객에 대해서 나중에 용역에서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통신사의 그 범위 안에 들어왔을 때의 문제 또 교통현황 그런 걸로 보는데 이번에 그걸 저희가 정확히 일일이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체온감지식 무인계수기를 저희가 1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체크돼 있는 무인계수기에, 아닌 데도 있지만 중앙로 중심으로 한 400만 건 정도가 체크가 됐는데 양방향, 갔다가 또 되돌아오는 경우 감안해서 사실상 과반 정도로 했고요. 그래서 한 200만 명 정도 다녀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 김민숙 의원

다음 장을 보시면 이게 무인계수기의 말씀하셨던 설치 장소입니다. 11개를 일자로 죽 나누어서 이렇게 설치를 하셨는데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여기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400만 명 정도가 찍혔는데 반을 나눠서 들어가는 입구, 나가는 입구를 쳐서 200만 명으로 아마 보정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중앙로로 넘어와서 당연히 우리 대전을 대표하는 성심당을 찍겠지요. 그리고 으능정이 거리로 가다 보면 여러 번의 중복과 반복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객관적인 방법으로 찾아봐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아까 통신사를 통해서나 이런 것들은 결과가 나올 건데 저는 저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 하고 살펴봤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요, 우리가 축제 장소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수단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지하철, 시내버스, 기차 그리고 자가용이라든지 관광버스, 자전거, 도보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타슈라든지 또 자동 전동기를 통해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기차를 통해서 진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전시와.

##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객관적으로 사람을 정확히 세기는 불가능하고요.

## ◎ 김민숙 의원

물론 그렇습니다.

##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문체부에서도 문화관광부의 이런 통계를 낼 때 무인계수기나 교통수단별, 통신사별 여러 가지 데이터 이런 것들을 종합하는데 이게 어느 것도 과학적으로 정확하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 해서 우리는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90일간 이에 대한 컨설팅 연구용역, 축제 평가를 맡겼는데 아마 그 결과가 나오면 그래도 대략의 근사치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 김민숙 의원

예, 보시지요.

대전시와 우리 정보기관에서 보여주는 수치들이 있습니다.

대전지하철 역별 승하차인원 오픈 API라는, 대전교통공사에서 제공해 주는데요.

여기는 제가 활용하려고 신청만 하면 바로 몇 시간 후에 승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었습니까.

그 정보를 보면요, 다음 장이요.

축제 장소에 인접한 대전역·중양로·중구청, 여기에 있는 지하철역의 하차인원들을 쭉 세어봤습니다.

작년 축제 때는 2시부터 체크를 하셨던데 저는 넉넉히 12시부터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차인원이 21만 2,225명이 되었고요.

다음 장이요.

이것은 버스입니다.

대전의 교통정보센터라는 곳에서 정보를 제공해 줬는데요.

조회 결과 8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아마도 노선 변경 때문인지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3일부터 17일까지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13일부터 17일, 5일간 하차인원이 16만 2,125명이었습니다.

이것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대전 전체로 나올 수 있는 자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가장 그래도 근접한 곳의 동구 원동·정동·중동, 중구 선화동·은행동·대흥동 하차인원을 전체 통합한 인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의 4일간 하차인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2배로 잡았습니다, 잡아서 보정을 해봤는데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13일부터 17일까지, 저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 축제 장소 이고요.

아까 6개 동의 넓이를 넓게 잡아서 여기에 하차한 인원, 아침부터 저녁 끝나는 시간까지 전체 인원을 계산해서 보정한 인원수가 16만 2,125명이었습니다.

다음 장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축제 장소로 올 수 있는 것으로 보면 버스, 지하철 그다음에 철도가 있을 겁니다.

철도도 우리 엄청 잘 분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을 찾아봤더니 대전시의 축제 기간 동안 하차인원이 33만 6,92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전역을 중심으로 왔을 건데 저는 넓게 봐서 서대전역에도 하차하는 인원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체 인원을 더해봤습니다.

그렇게 더해보고 나니까, 그것만 가지고 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걸어오는 것 그리고 자가용 타고 오는 것, 택시 타고 오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하루에 1만 5천 명으로 조금 더 추정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제가 계산한 축제의 인원은 굉장히 넉넉하게 했지만 74만 5,196명이 나왔습니다.

물론 모든 축제, 이 인원도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확한 수치라고, 객관적인 수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 계산을 했을 때 조금 더 누락됐을 가능성보다 사실은 미참석 인원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나 모든 축제가 마찬가지로 200만 명이라고 잡은 것은 분명히 어느 지역이나 똑같습니다.

인원을 조금 더 많이 넉넉하게 잡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예산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인원을 굳이 늘릴 필요도 없고 저희가 객관적인 통계나 이런 것들을 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축제를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방문객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축제 자체가 원도심 활성화나 경제 활성화형 축제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목적 자체가 원도심 활성화이고 또 코로나로 지쳤던 많은 상인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고 원도심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의원님처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저도 솔직히 정확히 몇 명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운 게 의원님이 옳다 아니면 우리가 하는 것이 옳다, 뭐 이렇게 서로 얘기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 김민숙 의원

예, 맞습니다.

####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나중에 객관적인 연구용역이나.

#### ◎ 김민숙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우리가 수치나 이런 것들은 보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왜냐하면 제가 9일 동안 거의 끝날 때까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보통 중앙로에 의자가 6천 석 깔려 있고 저쪽에 한 1,600석 정도가 깔려 있었을 겁니다, 역 앞에.

그런데 이게 좀 분류가 돼서, 예를 들어 힙합할 때는 6천 석에다가 그 뒤까지 해서 1만 명 정도가 12시까지 이런 상황이고 그 1만 명이 과연 어떻게 귀가를 하느냐, 제가 지하철역도 가보고 둘러봤는데 지하철 타는 분들하고 젊은 분들은 선화동이나 유성 쪽 방향으로 짝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통계가 쉽지 않고, 중앙시장 쪽은 우리가 계수기를 사실 설치 안 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중앙시장이나 이쪽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하셨고 그쪽에 일부 트로트 가수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체온감지식 무인계수기가 정확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지난번에 발표하면서 이렇게 추정되지만 정확한 통계는 10월쯤에 용역이 끝나면 그때 공식 말씀드리겠다 했던 거니까 이 문제는 한번 용역 결과를 지켜보시지요.

### ◎ 김민숙 의원

예,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지인도 참여가 44.3%라고 발표하셨고 시장님께서 어떤 행사에 가실 때마다 50% 가까운 인원들이 외지에서 참여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근거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석대에서 설문조사를 했지요.

###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예, 그렇습니다.





### ● 김민숙 의원

다음 장으로 넘겨주실까요.

이게 아마 설문조사에서 했던, 설문조사였고요.

323명을 대상으로 대전시민과 외지인들이 이렇게 왔다는 수치를 보여주셨고 발표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0만 명의 모집단에 대한 통계를 위한 샘플 사이즈는 최소 385명, 이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 적은 인원이다.

323명의 샘플로 추정하기에는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로 외지인이.

### ◆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

리얼미터나 이런 국가통계를 낼 때도 1천 명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지금 저 200만 명하고, 그러면 5천만 명 계산할 때 1천 명 하는 건 수치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 ● 김민숙 의원

그것은 원래 기본 샘플의 모집단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85명이면.

### ◆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

이 문제는 전문가들한테 해야지, 전문가들을 신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가들의 조사를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 김민숙 의원

저도 전문가에 의해서 나와 있는 표집단으로 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런 식으로.

● 김민숙 의원

표본 크기 계산기라는 게 있어요, 시장님.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아니, 의원님 잠깐만요.

그런 식으로 하면 대한민국 모든 여론조사는 다 안 맞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5천만 명을 1천 명으로 조사하고 2천 명으로 조사해서.

● 김민숙 의원

적어도 400명은 합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대통령 지지율 그거 다 가짜 아니겠어요, 그러면?



◎ 김민숙 의원

아니요, 표집단 표본 크기 계산기로 할 때는 400명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런 것으로 하면 전문가들에 의해서 충분히 했다고 보고 나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월에 용역 결과 최종 나오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숙 의원

예, 그때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요.

외지인이 오면 사실 기차를 타고 오거나 톨게이트를 통해서 자동차를 끌고 오거나 시외버스를 타고 옵니다.

그래서 또 조사해 봤습니다.

철도로는 33만 6,922명이 왔고요, 고속버스로는 4만 9,149명 그리고 시외버스는 7만 9,720대 정도가 우리 대전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하차하였습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자가용은.

◎ 김민숙 의원

뒤에 보시면 자가용은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지인이 몇 퍼센트라고 저도 판단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우리가 조사한 건 자가용은 한 22%쯤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 김민숙 의원

예, 저도 그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가용을 타고 오든 저는 1만 6천 명, 예를 들어서 22%가 왔다면 우리 대전시의 축제 기간에 근처에 아파트도 많이 없을 뿐더러 주차할 수 있을 만한 공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근방에다 세워놓고 걸어오거나 지하철을 타고 오거나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지금 외지인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어쨌든 버스를 타고 오거나 아니면 시외버스를 통해서 오거나 자동차로 오거나 기차를 타고 오니까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까요.

고속도로도 보니까 9일간 온 대수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125만 5천 대였어요, 그런데 이게 8개의 고속도로로 다 들어온 인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 들어오는 인원이 아파.

###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125만 5천 대에 1명씩 탔다고 할 수도 없지요.

### ◎ 김민숙 의원

그렇게 계산하지 않았지요, 당연히.



그래서 이 정도의 많은 인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다음 장에 나와 있는데요.

전 주와 비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지인들이 얼마나 유입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2주 전 같은 기간을 두고 따져보니까  
기차는 5,465명이 줄었고요, 고속버스는 1,225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도 1,738명이 줄었고요.

톨게이트는 2만 4,869대, 그러니까 톨게이트는 아마도 더 많은, 인원으로 하면 고속버스로  
들어오고 했으니까 더 많은 인원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것은 이해하는데요, 의원님도 충분히 노력하신 거 이해하는데 현장에 네 번 오셨다고  
했지요?

#### ◎ 김민숙 의원

예.

####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몇 시 대에 오셨습니까?

#### ◎ 김민숙 의원

저는 낮에 세 번 갔고요, 저녁에 한 번 갔습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저녁에 한 번 오셨지요?

◎ 김민숙 의원

예.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이 축제가 한여름 밤의 축제입니다.

◎ 김민숙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본격적인 축제는 해가 떨어지면서 하고 낮에는 지하상가 중심으로 시민들이 갔고 밤에 아마 12시까지, 9일 동안 현장에 오셨으면 아마 의원님 이 통계 잘 못 하셨을 겁니다.

우리 의장님과 시의원님들 많이 오셨는데 첫 주말에는 워낙 과밀하게 사람들이 오셔서 으능정이 골목이든 은행동이든, 제가 일일이 다 돌아봤기 때문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전 지역이, 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상 사람이 걷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계속했는데 의원님은 아마 낮에 오셨기 때문에.

◎ 김민숙 의원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현장에서 장사하셨던 분들 그리고 계셨던 분들의 의견도



다 들어봤습니다.

###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제가 듣기로는 현장에서 어제 대흥동 상인회나 중앙시장 상인회, 건어물 상인회, 역전시장, 은행동 상점가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원도심 경제 발전에 너무 크게 도움이 됐다, 우리 상인회는 앞으로 대전시의 0시 축제를 함께 협력하겠다.

그런데 반대로 일부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굉장히 왜곡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서 좀 반성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올 정도로 워낙 지역경제가 활성화됐고, 일부 가게는 하루에 3천만 원 이상씩 팔면서 그동안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들을 많이 해소했다고들, 굉장히 감사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의원님이 바라보시는 건.

### ◎ 김민숙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님 저도, 뒤에 나오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주말 내내 설문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로는 100% 위에 계신 분들은.

###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러니까 이 문제는 현장을, 설문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의원님도 정치인이고 사실 현장을 보지 않고 쉽게 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저는.

### ◎ 김민숙 의원

저 끝나고 현장에 가서 345개의 매장을 다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확인했습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현장이라는 것이 그 현장이 아니고 축제 현장에, 한여름 밤의 축제인데 적어도 9일 중에 반 정도는 12시까지 시의원으로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하고서 이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해야 제가 그것에 대해서 수궁하고 납득을 하지.

◎ 김민숙 의원

저는 시장님 많이 오고 안 오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아니, 시의원께서 이런 중요한 축제에 대해 직접 현장에 가서 제대로 낮의 상황은 어떤지, 밤의 상황은 어떤지, 안전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민숙 의원

예, 앞으로는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래야 이 문제에 대해서, 9일 동안 거의 현장을 지켰던 시장한테 그런 말씀을 해봐야 그것에 대한 납득을 제가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게 정치인 아니에요?

◎ 김민숙 의원

시장님 한번 끝까지 보시고, 납득이 되는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전혀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김민숙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신뢰할 수 없다.

왜, 김민숙 의원님이 저처럼 현장에 9일 동안 있으면서 현장도 체크하고 사람들 보고 했으면, 상인들 반응도 보고 했으면 제가 그런 얘기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하겠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낮에 세 번 와서, 낮에 사람 가장 없을 때 와서 보고 이 축제를 평가할 수 있다, 시의원이? 그건 굉장히 어폐라고 생각합니다.

## ◎ 김민숙 의원

시장님 이것은 제 개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제가 볼 때는 개인 생각으로밖에 안 보여요.

## ◎ 김민숙 의원

그 생각은요, 보시는 시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데이터는.

## ◎ 김민숙 의원

제가 잘못 생각했다면 그것 또한 시민들이 선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본인이 원하는 데이터는 중시하고 객관적인 여러 가지 데이터는 불신하는 거, 그거야말로 아주 이중적인 말이지요.

### ◎ 김민숙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한 부분도, 무인계수기도 포함해서 보지만 중복적으로 조금 더 객관적인 것도 같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러니까 무인계수기의 중복성을 어디까지 평가할 거냐 이런데, 400만 명의 무인계수기의 측정치 값을 어디로 중복치를 놔둘 거냐.

그리고 중앙시장 같은 데는 일체 설치를 안 했는데 거기에 왔던 분들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리고 걸어서 온 분은 어떻게 할 거냐, 골목길로 온 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제대로 된 데이터 없이 그냥 부정적인 요소로 이걸 계산하는 건 아주 어폐가 있다.

그래서 김민숙 의원님의 지금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 오로지 0시 축제가 안 되길 바라고 또 반대하길 바랐던 그런 의견으로밖에 안 보인다.

### ◎ 김민숙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 ◎ 김민숙 의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예산에서 맥주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이때 기차표라든지 버스표 그리고 숙박시설이 대부분 예약이 끝났고요, 엄청 매진이었습니다.

##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대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전에 호텔을 예약할 수가 없었고 호텔 관계자들 그리고 모텔 관계자들까지, 거의 매진되어 있었고 모든 외부인이 와서 하는 캐리어 보관함도 다 매진되어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산하고 대전하고 지금 비교할 상황이 아닙니다.

## ◎ 김민숙 의원

백석대에서 설문조사한 것을 나중에 보실 건데요, 거기에 보면 거의 숙박한 인원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제가 호텔 사장들한테 전화한 것만 한두 건이 아니고요.

호텔 상황이 어떤지도 체크했고 제가 일일이 체크했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보다 훨씬 많은

여러 가지 연락도 해보고 상황도 체크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민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약이 많이 되어 있고 이랬으면 우리 대전도 철도라든지 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진되면서 들썩들썩해야 합니다.

왜냐.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철도 다 매진돼서 표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원님 그걸 모르셨군요.

◎ 김민숙 의원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시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아, 무슨 말씀입니까?

◎ 김민숙 의원

아까 통계 확인 보여드렸지 않았습니까?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통계가 아니고 표를 구할 수가 없어서 올 수 없었다고 할 정도인데 그걸 제대로 확인 안



하시고.

◎ 김민숙 의원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의원님은 데이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현장에 직접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 보지 않고 대충 데이터 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질문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 김민숙 의원

데이터가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아니, 그런데 대전시에서 전문가들이 한 데이터는 믿을 수 없다, 그리고 김민숙 의원님이 신뢰하고자 하는 데이터만 믿는다.

◎ 김민숙 의원

아니요, 시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인계수기에 체크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신뢰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러면 지금 질문하시는 핵심이 뭡니까?

◎ 김민숙 의원

저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수치를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여기에서 수치 가지고 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 김민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왜냐하면 이 문제는 여러 가지 통계방식이 다르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축제에 대한, 0시 축제가 가야 될 여러 가지 기능과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건 보완하고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 김민숙 의원

그래서 저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런 방법과 무인계수기로 했던 방법들을 전부 다 보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이 문제는 공직자들이 이런 통계치에 대해서 아무리 밝더라도 그것이 옳다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들에게 맡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맡긴 결과가 나오면 그때 이 문제를 얘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 김민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때 잘 보완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어쨌든 굳이.

● 김민숙 의원

다음이요.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아니, 이 축제에 대해서 100만 명이 오든 200만 명이 오든 500만 명이 오든 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 기능이 과연 뭐냐, 이 축제가 과연 어떤 목적으로 개최돼서 시민들에게 어떤 유익한 점을 주고 어떤 불편한 점을 줬는데 그런 불편한 점은 다음에 어떻게 더 보완할 것인지, 또 이런 걸 수년 동안 또 10년 이상 하면서 대전의 대표 축제로 키워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어서 대전의 브랜드도 높이고 또 많은 상인들에게 힘도 되어 주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 김민숙 의원

예, 맞습니다.

저 뒤에 준비, 말씀하신 거 다 나오는데요.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경제효과도 4,033억 원이라고 발표하셨지만 뒤로 넘어가 보면,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효과라는 것이 축제 당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전체의 경제효과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축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해당되는 지역에서 발생했을 경제효과, 플러스 마이너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축제의 실질적인 경제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나.

####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방문객, 방문한 수가 정확히 나오면 평균 소비가 얼마인지 이런 여러 조사에 따라서 할 텐데요.

이 문제에서는 200만 명 이상이 온 기본적인 추정치를 가지고 계산해서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얼마이고, 또 설문에 의해서 대전을 방문한 외지인들은 대략 평균 얼마나 썼는지 또 대전시민들은 대략 얼마나 썼는지를 가지고 추정한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의원님하고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고 봐요.

#### ◎ 김민숙 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그렇게 브리핑에서 발표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래서 어쨌든.





● 김민숙 의원

지금 직접경제효과.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아니, 얘기한 것 중에 추정치로 발표되지만 전문가들에 의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정확히 그때 말씀을 드리겠다 한 거 아니겠어요?

● 김민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직접경제효과만 우리가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마음 같으면 전체 상가들 매출을 조사하고 싶은데, 지난번에 제가 0시 축제 현장에서 하루에 4천만 원 정도 파셨다고 옆집에서 귀뜸을 해서 그 사장님한테 “사장님 오늘 잘 되셨지요?” 그랬더니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기분이.” 그래서 “얼마나 파셨어요?” 그랬더니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영업비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걸 계산하기도 어렵고요.

● 김민숙 의원

맞습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방문한 분들의 평균 소비치 또 외부에서 왔을 때 교통비나 쓰고 가는

거, 이런 것으로 추산한 거기 때문에.

### ◎ 김민숙 의원

이게 아마 추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저도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 ◎ 김민숙 의원

이게 백석대에서 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번에 발표하실 때 4,033억 원이라는 것은 직접 경제효과와 간접경제효과를 얘기한 건데요.

다음 장 보시면, 이게 우리 대전시에서 2023년도 작년에 나왔던 보고서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간접유발효과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지역산업연관표가 광역 단위로 유발계수가 산출됨에 따라서 시의성 및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간접유발효과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발표하실 때 직접경제효과만, 방식을 권장해서 하고 있으므로 경제효과에 대한 부분은 직접경제효과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런데 의원님 보통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를 어디 개발한다 그러면, 도안동에 국가산단을 해서 만약에 완료했을 때 국가산단 안에서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계산할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주변 전체의 발전 이런 것은 잘 계산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경제는 어쨌든 직접효과와 간접적으로 누리는 경제적인 효과가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경제효과만 계산해 내는 건 방식이 아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 김민숙 의원

아니요, 이걸 문체부에서 내려온 거고요.

이거 작년에 우리 시에서 발표한 겁니다.

시에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제가 넣은 겁니다.

그래서 간접경제효과는 넣지 않는 것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민들뿐만 아니라 상인들은 “어떻게 우리가 4,033억 원을 벌었다는 거지? 나는 이렇게 벌지 못했는데.”라는 이야기를,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직접경제효과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0시 축제 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공식적인 예산은 42억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음 장이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체, 이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과를 통해서 받은 겁니다.

이게 거의 70억 가까이 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장이요.

그런데 제가 없는 예산이 너무 많아서 올해 예산안을 다 뒤져봤습니다.

거기에 0시 축제 관련한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예산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예산입니다.  
여기에서 물론 일부는 다른 예산으로 쓰이기도 하지만요.

####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의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행사 예산은 47억 3,050만 원이고요, 이 중 행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42억 5,05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교통통제 관련해서 교통정책과에서 한 게 4억 8천만 원이고, 그래서 46억 3,232만 원을 집행했고요.

연계 행사가 있습니다.  
그동안 각 부서별로 독자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을, 0시 축제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연계한 사업인데 이걸 축제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집행이 한 19억 2천만 원 가까이 됐고요.  
또 홍보비가 1억 6,603만 원인가 해서 아마 한 66억 정도 지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 김민숙 의원

제가 받은 것은 어쨌든 70억 가까이 되고요.

####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70억이든 66억이든 예산 투입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를 내는지 또 산출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 ◎ 김민숙 의원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억을 들여서 0시 축제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게 한 과에서, 어떤 총괄되어 있는 과에서 우리 0시 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이 그 과에서 모르는 건지 아니면 저한테 알려주지 않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아니 그것보다는 기존의 0시 축제, 예를 들면 0시 축제를 하는데 배드민턴대회를 한다, 전국대회를 한다 그러면 가능하면 0시 축제 때 함께 결합하면 외부에서 와서 함께 즐기고 먹고 쓰기 때문에 그런 연계 행사들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아닐 때 개최하던 것도 0시 축제 근처에 같이하고 이런 것을 연계하는 거지요.

### ◎ 김민숙 의원

여기에도 보이는 게 거의 다 연계 사업인 거 같습니다.

###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러면 그것을 0시 축제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 ◎ 김민숙 의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일원화되어서 조금 더 투명하게 예산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예산은 시의회에서 통과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의원님께서 직접 확인하시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 김민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이게 아마 우리 시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손길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여러 분들께서 후원한 부분들 그리고 봉사하시는 분들께, 이것보다 더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께 인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후원내역을 물어보니까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받아서 관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아직 얘기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이 시를 위해서 돈을 쓰는 일인데 그게 부끄러운 일이거나 숨겨야 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 문제는 대전사랑시민협의회 회장님이 할 일이고요.

저한테 질문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민숙 의원

조금 더 투명하게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제가 보여드릴 일이 아니라니까요.

◎ 김민숙 의원

그리고 다음 장 보여주실까요.



제가 0시 축제 티셔츠 구매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는 거예요.

과마다 티셔츠를 구매한 금액이 1억 5천만 원가량 되는데 이 예산은 도대체 어디에서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제가 듣기로는 아마 과별로 역량강화 연수, 그거 하는 비용으로 각자.

#### ◎ 김민숙 의원

단합대회 피복비 맞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랬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김민숙 의원

단합대회 피복비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건 자체 알아서 각 실·국별로 결정한 문제니까요.

의원님이나 저나 그걸 사라, 그걸로 해라 뭐 이럴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 ◎ 김민숙 의원

저는 그렇다면 한 업체에서 이렇게 1억 5천만 원 정도를 샀으면 쪼개기 예산이 아닌 이상

당연히 공개입찰로 해서 구매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 문제는 각 실·과별로 그동안 알아서 각각 나눠서 집행을 해왔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 김민숙 의원

그러면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나중에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러시지요, 나중에 실·국 과장들한테 그 문제는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민숙 의원

우리 대전시 현재 직원분들이 몇 명이지요, 시장님?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우리 정확히 4,200명 정도 되지요.

◎ 김민숙 의원

티셔츠만 해도 7,700장이더라고요.

그리고 피복비로 쓸 수 있는 것은, 저는 이것은 잘못된 예산이고 전용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인원에 맞지도 않고, 이것은 제가 업체를 어떻게 어떻게 찾아서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쪼개기로 각 과마다 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직속기관이나 위탁기관 내지는 다른 기관들이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감시하고 또 점검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투명하지 않게 사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저는 투명하지 않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각 실·과에서 투명하게 사용했다고 봅니다.

그걸 가지고 실·과에서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돈을, 쓸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 ◎ 김민숙 의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다시 조사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축제를 위한 제언들의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민들도 그랬고요. 작년엔 우리가 0시 축제 끝나고 나서 제언한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축제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유일하게 원도심을 기반으로 한 축제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0시 축제가 유지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들을 잘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

###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의원님도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축제를 큰 유형으로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형 축제의 방향이 있고 주민화합형 축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성구에서 하는 축제, 맥주 뭐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유림공원에서 하지요.

예를 들어서 또 중구에서 하는 효문화 축제, 동구동락 축제 이런 것도 예산이 한 10억

가까이 되는데 과연 그러면 이 축제들을 어떤 성격으로 규정할 것이냐, 주민화합형으로 할 것이냐.

동별로 대개 하는 축제들은 주민화합형 축제가 많고 2차세계대전 이후에 영국 같은 데도 에든버러 축제를 개발할 때, 2차세계대전으로 인해 민심도 흥흥하고 할 때 어떤 분의 제안에 의해서 축제를 시작해서 수십 년 동안 단점도 보완해 가면서 세계적인 축제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아무리 좋은 축제라도 정치적으로 시장이 바뀐다든가 구청장이 바뀌면 없애버리고 뭐 이런 상황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세계적인 축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축제는 우선적으로 지속가능성이 있으려면 경제 활성화형 축제로 가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0시 축제를 유성에서도 하고 원도심에서도 하고 격년제로도 해볼까 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중앙로처럼 주택가가 거의 없는 밀집지역 상권이 거의 유일합니다.

나머지 유성 같은 데는 대로에 주상복합이 워낙 많아서 한여름 밤에 특히 소음과 관련해서 도저히 집단민원을 이겨낼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건 아니라고 봐서요.

그런 생각이 좀 있고 또 축제를 위해서 5개 구가 지금 쓰는 예산이 많은데 각 구별로 활성화는 구청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2억 5천씩 각 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기도 하는데 저는 기왕이면 구청들도 주민화합형보다는 상권에 직접 들어가서 거기 상인들에게 힘이 되어 주고, 모였을 때 굳이 와서 축제장에서 맥주 몇 잔 마시고 현장에서 파는 그런 거 먹는 것보다 전체 축제장의 상권이 활성화되고 돈을 좀 쓰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 ● 김민숙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면, 다음 장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상인들 지상, 지하, NC백화점까지

전체적으로 봤는데요.

상당히 올랐다고 대답하셨던 분들은 주로 지상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그렇게 말씀해주셨고요.

지하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 번도 보면.

####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제가 지하상가 상인들 친한 분들이 여럿 있는데요.

#### ◎ 김민숙 의원

시장님, 50초밖에 없어서 이거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래도 이걸 해야지요, 마무리 문제가 아니고.

상인들 제가 여럿 친한 분들이 있어서 “지하상가 좀 어땠습니까?” 딱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는데 어떻게 도움이 안 됐겠어요!”

#### ◎ 김민숙 의원

예, 도움되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사람이 지하상가에 많이 있는데.

## ● 김민숙 의원

실제로 여기 보면 영업에 도움이 됐다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다음 장이요.

여기도 보면 앞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었지만 성격이 조금만 바뀌면 더 좋아지겠다는, 앞으로의 가능성도 많이 보여줬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번이요.

이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이었는데요.

통제가 너무 많이 돼서 불편했다, 축제가 너무 길었다, 꼭 여름에만 해야 하나.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은 콘텐츠 하나라도 잘 잡아서 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김민숙 의원님의 그런 의견은 저도 알겠고요.

김민숙 의원님은 왜 8월 그 기간에 하는지 혹시 이해하고 계십니까?

## ● 김민숙 의원

예.

###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지요?

### ◎ 김민숙 의원

관광진흥과에서 제가 충분히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첫째는 남들 안 하는 일을 해야 된다.

다른 지방정부에서 안 하는 걸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대개의 축제가 봄·가을 축제, 겨울 축제인데 한여름에 도심 한복판에서 하는 축제가 없어서 역발상으로 출발했고 그리고 대전 0시 축제는 대전발 0시 50분이라는 대전시민들, 구민들 사랑받는 기본에서 출발했구요.

또 하나는 그러면 시원할 때 하는 게 좋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의 충장로 축제가 9월에 했었는데 큰 성공을 못 했습니다.

이유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기온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나 오는 분들이 일찍 귀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축제하다 보면 비가 많이 오면 장마철에는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수십 년간의 기상청 통계에서 비가 가장 안 오는 시기를 선택한 거고 또 대한민국 광복절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낀 그 주가 비도 많이 안 오고.

교통을 통제하면 시민들 불편이 있겠지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최소화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 그래서 일단 아이들 방학 그리고 휴가철이 끼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하여 시기를 정한 거고요.

또 여기 보시면 콘텐츠도 써놓으셨는데 콘텐츠를, 가족 콘텐츠에 오신 분들이 문화재단 대표이사 얘기는 40만 명이 왔답니다, 가족들 프로그램에만. 체크를 일일이 다 했으니까 거기는.

● 김민숙 의원

예.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만큼 사랑을 받았고 전체 프로그램, 일단 김민숙 의원님도 못 가보신 낮에 극장에서 하는 프로그램, 갤러리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런 거 하나 못 보셨을 거예요.

수백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됐는데 그런 건 안 보고 메인행사에서 있었던, 밤에 뭐 가수만 왔다, 그건 하나의.

● 김민숙 의원

이건 의견이고요, 저는 낮에 가서 보니까는요, 너무 더워서 사람이 없었습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래서 낮에 실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런 데는 안 가보신 거지요.

● 김민숙 의원

가봤지요, 저는, 낮에는.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아니, 실내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 김민숙 의원

봤습니다.

◆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

뭐 보셨습니까?

● 김민숙 의원

가족테마파크 안에도 들어가서 확인해 봤고요.

아이들이 즐기는 것도 봤고요.

◆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

그거 말고는요?

● 김민숙 의원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반쪽짜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장님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더운데 낮에는 워터파크로 변화가 돼서 우리 대전의 빵이라든지 뭔가를 팔고 음료수도 팔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

낮에 한여름에 빵이 되게 위험한 게요, 굉장히, 만약에 빵이 상해서 식중독이나 이런 위험사고가 있고 그리고 우리도 물 시설을 할까 했는데 거기에 있는 전력이나 전기 이런 계통에 대한, 잘못하면 감전 이런 것들 우려를 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한 것이지 뭐 그런 걸

몰라서 안 한 건 아닙니다.

단지, 의원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축제는 한 번에 다 완성을 할 수 없고요.

올해보다는 내년에, 올해 단점을 우리가 충분히 체크했고 그런 걸 보완하고 내년에 또 보완하고 하면서 수십 년의 역사가 쌓이면서 세계적인 축제가 되는 것이지 그냥 한 번에 완벽하게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건 사실 신이나 하실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 조원휘 의장

김민숙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김민숙 의원

예,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상공인들이나 어쨌든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상인들이 함께 웃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루에 매출이 4천만 원 넘어서 기쁘고 좋은 분들도 계셨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앞으로 개발하는 데 있어서 모든 상인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축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고 싶고요.

아까 수치로 보여드렸던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맞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중복해서 같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김민숙 의원님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해서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죽했으면 그 지역 상인회장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꾸 하는 일부 정치세력이 있다는 걸 잘 압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잘 안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도 제가 잘 압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삶이나 그리고 많은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 코로나 시기 이런 거 하면 이렇게 환호하고 또 이렇게 힘이 되고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완벽하게 똑같이 소득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건 뭐 돈을 똑같이 나눠주는 게 차라리 낫고요.  
그건 불가능하고 어쨌든 그걸 통해서 또 대전시민뿐만 아니고 외부에서 와서 대전에다 돈을 쓰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결합돼서 대전의 전체 시민들의 삶에 만약에 소득이 되고 좋다면 저희는 더 개선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하고 하면서 이걸 세계적인 축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미 상인들도 그에 대한 반응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민숙 의원**

예,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저도 잘 들었습니다.  
다음 번 축제 현장에서는 더 많이 저도 확인하고 현장 사람들과 만나고 상인들과 소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시장님 옆에 쫓아다니겠습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의원님, 그러니까 내년에는 축제, 그래도 좀 힘듭니다.

발바닥에 염증이 생길 만큼 저 따라다니시면 고생하실 거니까 내년에 한번 전체, 낮부터 밤늦게 귀가할 때까지 한번, 또 시의원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직접 보시고 또 직접 평가하고 또 장사 잘되는 분들한테는 직접 가서 어떠시냐고도 좀 더 하고, 안되고 덜 됐다고 하는 분들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긍정적인 반응들을 더 많이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 ◎ 김민숙 의원

저도 부탁 한말씀드리면 안되는 분들, 한복집, 한약재거리 이런 분들께도 위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이 0시 축제가 특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0시 축제에서 한복 하시는 분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한의약도 내가 한의약거리에 대해서 거기 상인들 나와서 장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했습니다만 그러면 한의약거리에 있는 상인들께서 시민들 사랑받는 여러 가지를 결합을 하셔서 활성화하는 데 힘을 더 보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상인들께서도 0시 축제를 하면서 보다 진취적이고 새로운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더 참여하면 굉장히 좋은, 함께 결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 김민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늘어져서 죄송한 마음 있습니다.



그러나 저 또한 대전시 0시 축제의 발전을 위해서 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0시 축제를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 또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